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학습몰입이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

박명남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The Effect of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on their Academic Engagement

Myeong Nam, Park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Assistant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5권 제4호 2021년 12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5, No. 4, December. 2021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학습몰입이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

박명남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The Effect of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on their Academic Engagement

Myeong Nam, Park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on their academic engagement. **Methods :**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50 nursing students in a college located J city from August 1st to August 30th, 2021. Data from 236 sheets were finally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1 program. **Results :** The analysis found tha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learning flow and academic engagemen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regardless of some general characteristics like gender, grade and age but did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ased on the last semester academic scor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urned out to hav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with learning flow and academic engagement. Between the latter two variables, positive correlations existed with significanc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self-efficacy($\beta = .46, p < .001$) related to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rning flow($\beta = .17, p = .005$) accounted for 38.3% of the variance in predicting the level of academic engagement. **Conclusions :**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 program to strengthen the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which is related to their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Key words : Nursing studen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Learning flow, Academic engagemen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간호대학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학습성과(Program Outcome)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평가체계를 갖추어 간호교육 인증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간호대학은 타 학과와 달리 이론수업과 교내실습 및 임상현장실습을 병행하는 엄격한 교육과정을 가지며, 간호대학생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숙련된 간호 술기뿐만 아니라 임상 적응 능력까지 요구되고 있어 학업에 대한 과중함과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1]. 또한 임상실습 현장에서 직접적인 실습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감과 간호사 국가시험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자신에 대해 좌절을 경험할 때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심지어 잠재적인 정신 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2].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과중한 학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이 선행되어야 하며, 간호대학생이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양과 전공지식 및 간호술을 통합 적용하는 간호실무 능력을 갖추는 것뿐 아니라 학생 스스로 학습을 강화할 수 있는 간호교육의 수립이 필요하다.

긍정심리자본이란 경영학자인 Luthans 등[3]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개념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기존의 경제적 자본,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을 연결하는 무형의 자본으로서, 긍정적인 심리를 자본의 개념으로 확장한 것이다. 긍정심리자본은 건강을 추구하는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하고,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긍정심리 수용력을 통합하는 상위의 개념이다[3]. 이 중에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자신에 대하여 강한 믿음을 갖는 자신감이며, 희망(hope)은 성공을 향하여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향해 발휘하는 에너지이다. 낙관주의(optimism)는 앞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성공에 대한 기

대이며, 복원력(resilience)은 역경과 불확실한 상황에서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거나 극복하여 적응하는 능력을 말한다[3, 4]. 이 4개 영역의 심리적 변수가 모여서 다차원적 심리를 구성하게 되면, 인간은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로 통합된 긍정심리자본을 형성하게 된다[5]. Varga 등[6]은 로마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대학생의 강화된 내적 특성과 긍정적인 심리자본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균형적 역할을 하고, 의식적이고 긍정적이며 안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Rayman과 Varga[7]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학업 경로를 가지기 위해서는 문화적, 사회적, 긍정적 심리자본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개인은 긍정심리자본을 통하여 학업이나 직업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8], 긍정심리자본은 대학생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는 요인이 되므로[9], 이는 간호대학생에게도 필수적인 자원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듯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학업성과와의 관련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나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간호교육에서 학습성과 중심의 교육이 요구됨에 따라 학습자의 주도적인 참여에 따른 학습활동이 강조되면서 학습에 대한 심리적 현상을 의미하는 학습몰입의 개념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0]. 학습몰입이란 학습자가 다양한 학업 상황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즐거움을 크게 느껴 학습 과정에 완전히 흡수되는 최적의 심리상태를 말한다[11]. 학습몰입이 높은 학습자는 학습하는 과정에서 집중, 흥미, 노력을 지속시키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원만한 학업 수행과 성적 향상을 가져오고, 학습 지속에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12]. 학생들의 학업과정에서 학습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통제하는 자기관리 능력이 필요하다[13]. Csikszentmihalyi[14]의 몰입경험에서 일어나는 9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Back[15]은 학습몰입 척도를 인지적 몰입과 정의적 몰입으로 분류하여 정의하였다. 인지적 몰입은 도전과 능력의 균형, 정확한 목표, 구체적 피드백, 행동과 의식의 통합, 통

제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의적 몰입은 과제집중, 자의식 상실, 변형된 시간 감각, 자기 목적적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다[15]. 선행연구에서 학습몰입은 긍정심리자본과 관련되어 있고[9, 16],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학습몰입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긍정심리자본이 학습몰입의 강화에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16].

학습몰입과 함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요소로 학업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학습행동의 시작과 학습몰입을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학업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학업참여는 성취하고자 정한 학습 목표를 위해 학습자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학습활동과 학습 과정에 참여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이면서 동기적인 상태를 말한다[17]. 학업참여는 열정, 헌신, 몰두로 3개의 구성요인을 정의하였으며[18], 이 중에서 열정이란 과업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에너지로 일할 때 정신적 회복력, 일에 투자하는 의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의 지속성 등의 개념으로, 헌신이란 열정, 자신감, 도전, 중요성 등의 개념으로, 몰두는 어떤 일에 대하여 완전하게 집중한 상태나 전념한 상태로 설명하였다[18, 19]. 높은 학업참여는 성공적으로 대학생의 학업을 성취하고 학업 만족감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18]. 대학에서의 학습은 자기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특성이 강하므로[19], 대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하지 못하게 되면 학습부진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선행연구[20]를 고려할 때, 학업참여는 대학생활 적응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간호대학생의 학업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으로, 간호대학생의 학교적응에 필수 요소인 긍정심리자본과 학습몰입이 학업참여와 서로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업참여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과 학습몰입이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대학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간호교육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 학업참여의 정도를 확인하고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 학업참여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 학업참여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 학업참여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긍정심리자본과 학습몰입이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개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학습몰입이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J시에 소재한 일개 전문대학교 간호학부에 재학 중인 3, 4학년으로 임의표집을 하였다. 자료수집은 2021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1개월 간 모바일 설문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적정 표본 수 산출을 위해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기준으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0, 예측변인 5개로 산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204명이 요구되었으나 2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245명으로 하였다. 그 중 불성실한 답변 9부를 제외하고 총 23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여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1)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은 Luthans 등[8]이 개발한 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PCQ)를,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Kwon[23]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자기효능감 6문항, 희망 6문항, 복원력 6문항, 낙관주의 6문항으로 구성된 총 24문항의 도구이다. 측정 값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긍정심리자본 도구의 신뢰도는 Kwon[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08$ 이었고, 하위 영역은 .632~.839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3$ 이었고, 하위영역은 자기효능감 .830, 희망 .869, 복원력 .760, 낙관주의 .858로 나타났다.

2) 학습몰입

학습몰입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Back[16]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인지적 몰입 15문항, 정서적 몰입 14문항으로 구성된 총 29문항의 도구이다. 측정 값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습몰입 도구의 신뢰도는 Back[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7로 나타났다.

3) 학업참여

학업참여는 대학생용 학업참여 척도인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Student(UWES-S)를 개발한 Choo와 Sohn[21]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열정 6문항, 헌신 3문항, 몰두 4문항으로 구성된 총 13문항의 도구이다. 측정 값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업참여 도구의 신뢰도는 Choo와 Sohn[2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6으로 나타났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급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연구 방법, 철회 가능성, 비밀보장, 이익과 위험, 설문 방법, 설문 소요시간 등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의 의사를 밝힌 학생을 대상으로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그 후 각 반의 학생이 모두 볼 수 있는 SNS에 설문지 주소를 링크하여, 사전 동의를 한 학생에게 자유롭게 온라인 설문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참여자를 식별할 수 없는 익명성 코딩으로 전 처리되어 개인정보가 비밀 보장 된다는 것과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설문 작성 중에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설문조사 시 링크를 통해 설명문으로 다시 한번 안내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학용품을 선물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아래와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으며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 학업참여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 학업참여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 (3)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 학업참여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파악하였다.
- (4) 긍정심리자본과 학습몰입이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자 37명(15.7%), 여자 199명(84.3%)이고, 학년은 3학년 141명(59.7%), 4학년 95명(40.3%)이었으며, 연령은 25세 이하 181명(76.7%), 26세~30세 28명(11.9%), 31세~40세 10명(4.2%), 41세 이상 17명(7.2%)으로 나타났다. 지난 학기 성적은 평점 4.5 만점에 4.0 이상이 65명(27.6%), 3.9~2.5가 136명(57.6%), 2.4 이하가 35명(14.8%)으로 응답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 236)

Variables	Categories	N(%)
sex	Male	37(15.7)
	Female	199(84.3)
Grade	3rd	141(59.7)
	4th	95(40.3)
Age	≤ 25years	181(76.7)
	26~30years	28(11.9)
	31~40years	10(4.2)
	≥ 41years	17(7.2)
Last Semester Academic Score	≥ 4.0 ^a	65(27.6)
	3.9~2.5 ^b	136(57.6)
	≤ 2.4 ^c	35(14.8)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 학업참여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 학업참여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 학업참여는 성별, 학년, 연령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지난 학기 성적은 긍정심리자본($F=5.18, p=.006$), 학습몰입($F=14.59, p<.001$), 학업참여($F=8.54, p<.001$)에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긍정심리자본은 지난 학기 성적 4.0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이 2.4 이하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학습몰입과 학업참여는 지난 학기 성적 4.0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이 3.9~2.5와 2.4 이하로 응답한 학생에 비해 점수가 모두 높았다.

3.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 학업참여의 정도

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3 이하로 나타나 정규성의 가정을 만족하였으며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 학업참여의 정도는 <Table 3>과 같다. 긍정심리자본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54 ± 0.47 점이었으며,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 평균은 희망 3.59 ± 0.55 점, 자

Table 2. Differences i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Learning Flow and Academic Engagement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 = 236)

Variables	Categorie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Learning Flow		Academic Engagement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sex	Male	3.50±0.45	-0.66	2.93±0.34	-0.47	3.42±0.60	1.35
	Female	3.55±0.47	(.513)	2.96±0.49	(.642)	3.28±0.57	(.178)
Grade	3rd	3.52±0.46	-0.85	2.96±0.46	0.19	3.35±0.55	1.60
	4th	3.58±0.47	(.397)	2.95±0.49	(.851)	3.23±0.61	(.118)
Age	≤ 25years	3.53±0.44		2.95±0.44		3.29±0.56	
	26~30years	3.38±0.57	1.86	2.96±0.50	0.28	3.41±0.60	0.42
	31~40years	3.36±0.45	(.137)	2.96±0.55	(.841)	3.27±0.63	(.739)
	≥ 41years	3.75±0.49		3.06±0.68		3.35±0.67	
Last Semester Academic Score	≥ 4.0a	3.67±0.44	5.18	3.21±0.50	14.59	3.55±0.57	8.54
	3.9~2.5b	3.53±0.47	(.006)	2.88±0.44	($p<.001$)	3.23±0.55	($p<.001$)
	≤ 2.4c	3.37±0.45	a>c	2.79±0.35	a>b,c	3.16±0.58	a>b,c

기효능감 3.58 ± 0.54 점, 낙관주의 3.51 ± 0.60 점, 복원력 3.49 ± 0.60 점이었다. 학습몰입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96 ± 0.47 점이었으며, 학습몰입의 하위영역 평균은 인지적 몰입 3.24 ± 0.50 점, 정의적 몰입 2.67 ± 0.61 점으로 나타났다. 학업참여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31 ± 0.58 점이었으며, 학업참여의 하위영역 평균은 열정 3.46 ± 0.63 점, 헌신 3.30 ± 0.81 점, 몰두 3.17 ± 0.81 점이었다.

4.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 학업참여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 학업참여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인 자기효능감($r = .41, p < .001$), 희망($r = .39, p < .001$), 복원력($r = .27, p < .001$), 낙관주의($r = .32, p < .001$)와 학습몰입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인 자기효능감($r = .58, p < .001$), 희망($r = .42, p < .001$), 복원력($r = .36, p < .001$), 낙관주의($r = .29, p < .001$)와 학업참여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학습몰입과 학업참여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Table 3. Degre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Learning Flow, Academic Engagement

Variables		M±SD	Skewness	Kurtosis	Cronbach's α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efficacy	3.58 ± 0.54	.25	.25	.830
	Hope	3.59 ± 0.55	.17	.09	.869
	Resilience	3.49 ± 0.60	.23	.13	.760
	Optimism	3.51 ± 0.60	.23	-.01	.858
	Total	3.54 ± 0.47	.45	.34	.923
Learning Flow	Cognitive Flow	3.24 ± 0.50	.45	.55	.907
	Defining Flow	2.67 ± 0.61	-.10	.59	.926
	Total	2.96 ± 0.47	.28	.45	.927
Academic Engagement	Vigor	3.46 ± 0.63	-.23	1.07	.897
	Dedication	3.30 ± 0.81	-.01	-.32	.855
	Absorption	3.17 ± 0.81	.17	-.32	.926
	Total	3.31 ± 0.58	.07	-.59	.876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 = 236)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Learning Flow	Academic Engagement
		Self Efficacy $r(p)$	Hope $r(p)$	Resilience $r(p)$	Optimism $r(p)$	$r(p)$	$r(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 Efficacy	1					
	Hope	.64 ($< .001$)	1				
	Resilience	.54 ($< .001$)	.66 ($< .001$)	1			
	Optimism	.41 ($< .001$)	.52 ($< .001$)	.54 ($< .001$)	1		
Learning Flow		.41 ($< .001$)	.39 ($< .001$)	.27 ($< .001$)	.32 ($< .001$)	1	
Academic Engagement		.58 ($< .001$)	.42 ($< .001$)	.36 ($< .001$)	.29 ($< .001$)	.41 ($< .001$)	1

있음을 확인하였다($r=.41, p<.001$)

5. 긍정심리자본과 학습몰입이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과 학습몰입이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모형1에는 일반적 특성 중 학업참여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지난 학기 성적을 가변수 처리하여 투입하였으며, 모형2에는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와 학습몰입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분석 전에 오차항들 간의 자기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더빈-왓슨(Durbin-Watson) 통계량을 구한 결과, 1.681으로 2값의 근방으로 나타나 오차항들 간 자기상관은 없었다.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인자(VIF)를 구한 결과, 공차한계는 .43~.86으로 .10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는 1.36~2.40으로 10 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분석 결과, 모형1에서 학업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지난 학기 성적 4.0 이상($\beta=.30, p=.001$)이었다. 즉, 지난 학기 성적 4.0 이상 상위권일 수록 2.4 이하 하위권보다 학업참여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으며, 모형1에 투입된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6.8%이었다($F=8.54, p<.001, R^2=.068, \text{Adj } R^2=.060$). 모형2에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인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와 학습몰입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beta=.46, p<.001$)과 학습몰입($\beta=.17, p=.005$)은 학업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 추가로 설명되는 비율은 31.5%이고 총 설명력은 38.3%이었다($F=20.21, p<.001, R^2=.383, \text{Adj-}R^2=.364$).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과 학습몰입이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 교육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시도하였다. 대상자로부터 회수한 설문지 236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Table 5. The factors related to Academic Engagement

(N=236)

		Model 1						Model 2					
		B	SE	β	t	p	VIF	B	SE	β	t	p	VIF
(Constant)		3.16	.09		33.51	<.001		.70	.26		2.70	.008	
Last Semester Academic Score	≤ 2.4 Reference ≥ 4.0 3.9~2.5												
		.39	.12	.30	3.29	.001	2.07	.06	.10	.05	0.62	.534	2.34
		.07	.11	.06	0.63	.532	2.07	-.05	.09	-.05	-0.63	.528	2.11
Self Efficacy								.49	.08	.46	6.42	<.001	1.90
Hope								.00	.09	.00	0.04	.966	2.40
Resilience								.05	.07	.05	0.73	.467	2.05
Optimism								.01	.06	.01	0.20	.841	1.56
Learning Flow								.21	.07	.17	2.83	.005	1.36
Adj R ²					.060						.364		
R ²					.068						.383		
ΔR^2					-						.315		
F(p)					8.54(<.001)						20.21(<.001)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 학업참여의 차이를 보면 일반적 특성 중 성별, 학년, 연령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지난 학기 성적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학기 성적이 평점 4.5 만점에 4.0 이상 학생이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 학업참여에서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Oh와 Kim[21]의 연구와 지난 학기 성적이 높을수록 학업참여가 높게 나타난 Kim 등[2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결국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 학업참여가 낮게 나타나는 성적부진 학생들은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할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 학생지도를 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교육전략이 필요하다. 학습부진 학생의 경우 개인별 심층면담을 통해 학습부진의 요인을 탐색하고 진단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형 학습 지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간호학과의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평균은 3.54점으로 중간 수준 이상이었으며 하위영역 평균은 희망 3.59점, 자기효능감 3.58점, 낙관주의 3.51점, 복원력 3.49점 순이었다.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won[23]의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 평균 3.39점이었으며, 하위영역 평균은 자기효능감 3.48점, 희망 3.40점, 복원력 3.38점, 낙관주의 3.32점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보다 점수가 낮았으며, 높은 점수를 보인 하위영역 순서에도 차이를 보였다. 반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Jeong과 Jung[24]의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의 평균은 3.42점이었고, 하위영역 평균은 희망 3.44점, 자기효능감 3.43점, 복원력 3.42점, 낙관성 3.41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중 희망, 자기효능감 순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이 간호대학생으로서, 일반 전문대생에 비해 학과의 특성상 간호사는 직업에 대한 직업관이 뚜렷하고, 전문적인 간호를 실현하기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하여 간호학에 대한 자긍심과 목표의식을 가지게 되는 교육적 환경

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학습몰입 평균은 2.96점이었으며, 하위영역 평균은 인지적 몰입 3.24점, 정의적 몰입 2.67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Chin과 Jung[25]의 연구에서는 학습몰입 평균이 3.05점이었고 하위영역 평균은 인지적 몰입 3.27점, 정의적 몰입 2.83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나 정의적 몰입보다 인지적 몰입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유사한 도구를 사용한 Kim 등[22]의 연구에서 학습몰입 평균이 2.86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정확한 지식에 따라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고유업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도전과 능력의 균형, 정확한 목표, 구체적 피드백, 행동과 의식의 통합, 통제감으로 구성된 인지적 몰입이, 과제집중, 자의식 상실, 변형된 시간 감각, 자기 목적적 경험으로 구성된 정의적 몰입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학업참여의 평균은 3.31점이었으며, 하위영역 평균은 열정 3.46점, 헌신 3.30점, 몰두 3.17점 순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im 등[26]의 연구에서 학업참여 평균은 3.07점이었고 하위영역 평균은 헌신 3.58점, 몰두 3.02점, 열정 2.84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Ra 등[28]의 연구에서는 학업참여의 평균은 3.17점이었고, 하위영역 평균은 헌신 3.56점, 열정 2.99점, 몰두 2.97점 순이었다. 선행연구[26, 28]에 비해 본 연구에서 학업참여 하위영역 중 열정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간호대학 내 상위 학년인 3, 4학년 학생이어서, 진로에 대한 직업관이 비교적 정립되어 있어 학업적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견디고 회복하는 역량이 약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 학업참여 간의 상관관계는 4개의 하위영역을 포함한 긍정심리자본과 학습몰입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긍정심리자본과 학업참여도 유의한 정의 상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습몰입과 학업참여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다고 한 Kim[16]의 연구결과와,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참여 수준이 높다고 한 Shin[27]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긍정심리자본의 향상이 학습몰입과 학업참여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긍정심리자본을 강화시키는 교육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과 학습몰입이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업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같이 학업참여를 종속변인으로 한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여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성숙의 영향요인을 확인한 Kwon[23]의 연구와, 미용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성, 혁신행동의 영향요인을 확인한 Ryu[29]의 연구에서 모두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 중 자기효능감이 가장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의 맥락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자신에 대하여 강한 믿음을 갖는 자신감으로서, 대학생의 정서적 고립과 우울이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킨다고 한 Park 등[30]의 연구결과를 볼 때, COVID-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생의 정서적 고립과 우울이 증가할 수 있으며, 우울이 증가하면 자기효능감이 감소하고 학업 수행에서 주의집중, 흥미, 노력, 투자 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비대면 수업에서는 특히, 교수의 실재감을 높이고 학생의 학습 흥미를 높이는 노력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즉,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교과와 비교과 영역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접근과 함께 학습몰입을 높이는 교육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과제 난이도가 너무 쉽거나 어려울 때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을 방해할 수 있으

로, 교수는 학습 내용의 난이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학생에게 과제해결을 위해 지식과 기술을 향상하는 기회를 높여준다면, 간호대학생의 학업참여를 성공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과 학습몰입이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으로 나타났다으므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을 향상시키는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지난 학기 성적에 따라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 학업참여에 차이가 있었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변인별 점수가 낮았으므로 성적부진 학생이나 적응부진 학생의 경우,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전략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에서 연구대상을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메타연구와 실험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학업참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과 학습몰입이 학업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선행연구를 통해 학업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선행변수를 발견하여 학업참여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1. Koo HY. Effects of the enneagram group counseling program on self-esteem, anxie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3):444-453.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3.444>
2. Cho SB, Kim SH. Development of a spirituality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2;13(2):877-890.
<https://doi.org/10.15703/kjc.13.2.201204.877>
3. Luthans F, Luthans KW, Luthans BC.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yond human and social capital. Business Horizons. 2004;47(1):45-50.
4. Youssef-Morgan CM, Luthans F. Psychological capital and wellbeing. Stress and Health. 2015;31(3):180-188.
5. Luthans F, Youssef-Morgan CM, Avolio BJ.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ing the human competitive edge. Oxford Scholarship Online. 2006.
6. Varga A, Trendl F, Vitez K. Developmen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t a Roma student college. Hungarian Education Research. 2020;10(3):263-279.
<https://doi.org/10.1556/063.2020.00024>
7. Rayman J, Varga A. Resilience and inclusion. Romology. 2015;3(10). Pecs: University of Pecs.
8. Luthans F, Avolio BJ, Avey JB, Norman SM.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2007; 60(3):541-572.
9. Jung HH, Park BH.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asic psychological needs(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 Learning flow and life satisfa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9;19(19):825-845.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19.825>
10. Kim SH, Park SY.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15(3):1557-1565.
<http://dx.doi.org/10.5762/KAIS.2014.15.3.1557>
11. Lee JH.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o learn, meta-cogn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flow, and school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010;48(2):67-92.
12. Perry JC. School engagement among urban youth of color: Criterion pattern effects of vocational exploration and racial identity.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008;34(4):397-422.
<http://dx.doi.org/10.1177/0894845308316293>
13. Lee JS.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cognition and learning flow of high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009;26(2):277-295.
<http://dx.doi.org/10.24211/tjkte.2009.26.2.277>
14. Csikszentmihalyi M.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1990.
15. Baek EJ. Mediation effects of parental autonomy support, autonomy support of instructors and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in relationships between perfectionism and learning flow of university students [dissertation]. Busan: Dong-A University; 2018.
16. Kim YM.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tween self-leadership and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7):112-122. <http://dx.doi.org/10.5762/KAIS.2016.17.7.112>
17. Fredricks JA, Blumenfeld PC, Paris AH. School engagement: Potential of the concept, state of the evid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2004;74(1):59-109.
<https://doi.org/10.3102/00346543074001059>
18. Schaufeli WB, Salanova M, Gonzalez-Roma V, Bakker AB. The measurement of engagement and burnout: A two sample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002;3:71-92.

19. Choo HT, Sohn WS. A validating academic engagement as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for Korean college students: Academic motivation, engagement, and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12;9(3):485-503.
<https://doi.org/10.16983/kjsp.2012.9.3.485>
20. Yune SJ.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preventative learning consultation program for university underachiever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013;25(3): 643-660.
<http://dx.doi.org/10.13000/JFMSE.2013.25.3.643>
21. Oh JH, Kim JS. The influenc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directed learning and social support on learning flow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20(23):1021-1037.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23.1021>
22. Kim DO, Lee HJ, Lee AY.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hysical health status,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learning flow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20;11(1):349-357.
<https://doi.org/10.15207/JKCS.2020.11.1.349>
23. Kwon KM.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ocial support on the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Sungsil University; 2016.
24. Jeong E, Jung MR.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 on gri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8;16(9):309-317
<https://doi.org/10.14400/JDC.2018.16.9.309>
25. Chin EY, Jung CH. The effect of mental well-being, professor trust, and learning flow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Health & Welfare*. 2020;22(1):151-176.
<https://doi.org/10.23948/kshw.2020.03.22.1.151>
26. Kim EM, Hong JY, Lee EK.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professor trust on academic engage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8;19(5):357-365.
<https://doi.org/10.5762/KAIS.2018.19.5.357>
27. Shin HS.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academic engagement on the relation of motivating instructional contexts to academic satisfac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19;10(4):511-526.
<http://dx.doi.org/10.22143/HSS21.10.4.37>
28. Ra YA, Lee JY, Kim WH. impact of students' characteristics on academic engagement: a mixture modeling analysi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6;17(1):369-390.
29. Ryu EJ. The influenc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reativity and innovation behavior for beauty majored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2018;24(3):247-257.
30. Park JS, Lee SM, CHO SB. The influence of isolation on academic engagement among college students in the COVID-19 pandemic: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21;28(10):453-487. <https://doi.org/10.21509/KJYS.2021.10.28.10.453>